

# 완도군, 해양치유 홍보관 운영

### 한-아세안 정상회의장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



완도군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홍보관을 운영하여 눈길을 끌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19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는 부산 벡스코 컨벤션센터에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한·아세안 간 공식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현 정부 들어 우리나라에

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이다.

국가 정상들이 모인 회의장에서 전국 지자체 중 부산을 제외하고 완도군이 유일하게 홍보관을 운영하게 된 것은 해양수산부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인 해양치유 산업 홍보관을 직접 설치하고, 완도군에 무상 제공하면서 해양치유 산업을 홍보 할 수 있게 됐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 소개, 해양치유 식품인 꽃차 시음, 해조류

로 만든 먹거리 시식, 다시마 마스크 팩 체험, 해조류 추출물을 첨가한 수제 화장품 시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정상회의 장의 삼엄한 경비로 인해 출입이 까다로운 상황에서 당초 예산을 깨고 외국인 포함 1,100여 명이 홍보관을 찾아 완도군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특히 해양생물치유의 대표 지원인 미역과 다시마 추출물을 첨가한 핸드크림과 미스트, 다시마 마스크 팩은 여성 외국인들이 대단한 관심을 나타내며 판매 문의가 이어졌다.

또한 완도에서 채취한 국화와 도라지꽃, 금계국꽃으로 우려낸 꽃차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호기심을 보이며 시음을 즐겼다.

뿐만 아니라 김, 다시마, 톳과자, 톳 젤리, 구운 김 등 5종의 먹거리는 동남아시아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가져간 제품이 일찍이 끝나 관계자들을 당황케 했다.

26일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완도해양치유 홍보관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장에서 완도 홍보관을 운영한 것은 완도군과 해양치유산업, 완도 수산물에 대한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인기몰이



목포시는 목포생활도자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유료 체험프로그램 연간 참여자가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2006년 개관 당시부터 운영한 체험프로그램 참여인원은 2017년 8,700명, 2018년 8,900명으로 매년 증가하여 올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목포생활도자박물관은 목포의 오랜 도자 역사 전통을 품고 있는 국내 최초의 생활도자 전문 박물관으로, 방문객들이 도자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은 세라믹색

종이체험, 도자기체험 등으로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도자박물관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알차고 풍성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겠다. 즐거움이 가득한 도자박물관에서 도자기 관람도 하시고, 체험도 하시면서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체험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생활도자박물관 홈페이지(<http://doja.mokpo.go.kr>) 및 전화문의(061-270-8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포=박정수 기자

# 맛의 1번지 강진군 먹거리 알리기... 식품 서포터즈 모집

### SNS 사용자라면 누구나 2020년 12월까지 활동

강진군이 오는 12월 13일까지 강진군 식품홍보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할 '강진군 식품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SNS, 블로그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면 지역,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사진·영상촬영·글쓰기 등 포스팅 경력을 우대한다.

접수방법은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나 강진군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할 수 있고 강진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yyc1@korea.kr)로 접수 할 수 있다. 문의는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 061-430-3136)로 하면 된다.

서포터즈 선정은 군에서 지원서 및 SNS 활동내역을 확인해 자체 평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서포터즈에 선정되면 위촉일로부터 2020년 12월까지 활동하고, 활동 시 강진군의 대표식품을 무료로 제공받고 팸투어 기회를 얻게 된다.

이 밖에도 우수 활동자에게는

군수 표창을 수여해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서포터즈 선정자는 SNS, 블로그 등을 통해 강진식품에 대해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워크숍 및 교육에 참여하는 역량강화 활동과 행사(축제)장을 방문해 지역 농수산물 등 홍보 및 강진 식품업체 및 제품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강진 식품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소비자와 상생하는 마케팅 추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장흥군, 연극으로 풀어낸 동학 '하얀 하늘' 공연

### 내달 5일 오후 7시 올해 마지막 작품

오는 12월 5일 오후 7시 장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장흥 동학을 주제로 한 연극 '하얀 하늘'이 무대에 오른다.

'하얀 하늘'은 송기숙 작가의 '늑두장군', 한승민 작가의 '동학제'를 바탕으로 만든 연극이다.

장흥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 예술단 '결'이 '고래', '앙코르 설화, 그거 맛있는 거야?' 이후 올해 마지막 작품으로 선보는 작

품이다.

이번 연극은 동학의 마지막 격전지인 장흥에 관한 이야기이다.

125년 전 조선 말기를 살아가던 민초들은 장흥군 석대들에서 최후의 혈전을 펼치게 되고, 지금의 우리는 일본제국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연극은 그렇게 다른 듯 닮은 서사가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예술단 '결'의 작품은 무대 위에서의 배역 뿐 아니라 작곡, 음울해 마지막 작품으로 선보는 작

스텝활동 대부분을 장흥군민들이 소화해낸다.

대부분의 배우들은 장흥군에서 학교를 다니는 초·중등학생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됐다.

배우들은 이번 공연에서 검무, 소리, 북 연주까지 다양하게 준비해 장흥의 동학을 표현한다.

정종순 군수는 "장흥군은 이순신 장군이 조선 수군을 재건한 회령진성 등 의항의 고장이다"며, 애환과 애국의 마음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번 공연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안군 벼농사규모화사업'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

신안군은 농촌의 고령자·여성농가 등 영농취약계층과 영세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영농조합법인 케소(지도읍, 비금면, 안좌면)를 시범적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다.

벼농사규모화 사업은 민선7기 신안군의 공약사업으로 벼육묘부터 건조까지 모든 작업이 기계로 가능한 영농작업으로 농가 경영비 감소와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민들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해주는 농민 소득증대 사업이다.

군은 지난 6월 고령자·소규모 벼농사 경작농민을 대상으로 영농

조합법인이 영농작업을 대행하고 그 비용을 20%이상 경감해 주는 약정식을 체결하였다.

군 관계자는 11월 중순 벼농사를 마치고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농민들은 "적절한 시기에 농작업 대행을 해주어 노동력과 비용이 절감되어 100% 만족한다."며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준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이 사업이 계속되고, 아직 지원받지 못한 농가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의견을 표했다.

특히 금년에는 3번에 걸친 태풍으로 인해 적기 수확에 따른 걱정을 많이 하였으나, 영농조합법인이 고령자·여성들이 자영하는 영세한 농가들을 우선으로 대행해주는 미덕을 발휘하는 등 지역 농민들에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영농대행을 해줌으로써 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다.

박우량 군수는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